

(주)나노텍세라믹스

# 땅을 딛고 온 세계를 누비다



— 대박에 감, 안 신어 봤으면 말을 하지 마

“어, 미끌어질 텐데... 어, 아니네”

기름과 물을 부은 경사진 미끄럼틀 위를 걷는 'IHAD' 특수 안전 장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다.

'IHAD' 특수 안전 장화는 (주)나노텍세라믹스가 지난해 12월에 출시한 제품. 각 전시회장에서 직접 선보인 안전성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홍보 전략이 적중했는지, 가져간 샘플은 모두 매진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국제낙시박람회에서는 세계적인 낙시 명인으로 알려진 일본의 무라타 하지메씨가 즉석에서 수입계약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IHAD' 특수 안전 장화는 나노세라믹 기술과 밀착 소재 기술이 융합돼 기존 안전화에 비해 물 위에서는 1.8배, 기름 위에서는 3~4배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높다. 바닥이 미끄러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시터, 병원, 화장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의 활로도 열려있는 셈이다.

출시한 지 4개월, 'IHAD' 특수 안전 장화는 전 안 신어 본 사람은 감탄할만 한 안전성으로 벌써부터 재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부산에 있는 어묵 공장에서는 3일 만에 재 주문이 들어왔고 과천 대공원 돌고래쇼장에서는 신어 본 즉시 주문했다. 정상욱 대표는 특수 안전 장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매출을 올리는 것만큼 제품 개발에 보람도 느낀다.

“현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꼼짝을 못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요. 뿐만 아니라 다쳐서 꼼짝을 못 하면 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지니까 그런 낭패가 없지요. 그런 걸 생각 하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IHAD' 특수 안전 장화는 미끄럼 방지 성능 뿐 아니라 내마모성이 좋아서 잘 닳지도 않는다. 그래서 정 대표는 너무 오래 신으면 어쩌나 하는 참 웃지못할 고민도 한다.



기름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있을까? 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왜'라고 묻는 생각의 진보가 미끄러지지 않는 장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다. 10년 동안 쌓아온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iHAD' 특수 안전 장화를 출시하고 홍보에 전걸음을 걷고 있는 (주)나노텍세라믹스(대표 정상욱, www.ntcermic.com)을 찾아봤다.

글·사진 김미숙



### ‘블라인드 스팟’을 노려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나노텍세라믹스는 2000년 문을 열고 난연재, 충전제, 세라믹 등 소재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 왔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단 과실을 맛볼 수가 없어 쌓아온 재료 기술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정 대표가 주목한 분야는 신발이었다. 디자인에 승부를 거는 유럽과 싼 것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아시아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하다가 재료에서 해답을 찾았다. “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두기엔 이미 늦은 감이 있었고,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싼 아시아 지역과 경쟁하기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공정을 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부트란'이란 시스템이다. 신발 중창의 접착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4일의 공정작업을 1분에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획기적인 공정 축소는 인건비 절감 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 공정이기까지 하다. 아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상용화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외 기업들이 검토 중에 있다.

### 끊임없는 기술개발, 자신감을 펴뜨릴 한다

이 같은 '부치란', 'iHAD' 특수 안전 장화를 개발하게 된 것은 10년간 쌓아온 세라믹 소재 산업 기술이 밑바탕이 됐다. 나노텍세라믹스는 소재기술연구소를 두고 총 매출의 30%를 투자해가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나열하기 벅할 정도의 소재 개발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매출의 30%를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없이는 오늘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술개발에 지원해 준 것에 고맙고, 다른 벤처 기업에서도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iHAD' 특수 안전 장화를 보고 사람들은 두 번 놀란다고 한다. 한 번은 뛰어난 안전성에 그리고 비싼 가격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내마모성이 월등하기 때문에 정 대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으리라 자신한다. 나노텍세라믹스의 브랜드 'iHAD'는 '꿈을 가진다'는 의미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펴뜨릴 자신감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뚫는 동력이다. 위기 속에서 진짜 실력은 빛난다 했던가, 경제 한파를 넘어 세계를 누빌 나노텍세라믹스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 <(주)나노텍세라믹 대표 기술 & 제품>



미끄럼 방지용 신발 밑창 iHAD & Butran(아웃솔 접착강도 개선용 마스터배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밑창(slip resistance outsole)을 적용한 iHAD 안전화 및 장화는 종래의 안전화 및 장화보다 미끄럼 방지 성능이 탁월하다. 기존의 안전화 및 장화보다 물 위에서는 1.8배, 기름 위에서는 3~4배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높으며 미끄럼 방지 밑창은 다양한 신발류에 적용 가능하다. '부트란'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연마 및 세척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신발 밑창의 접착강도를 개선시키는 마스터배치 컴파운드이다.

